朝鮮日報 夕刊 二十八日(日) 本紙朝刊十面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景氣前途考察
高橋藏相의聲明을보고

一

또는 極限한다 할만한 政府의 積極的財政策 即 巨額의 赤字公債의 增發이 消化된 結果로서 惹起되어왓고 또는 이것을 인플레景氣의 促成에 가장큰힘으로 삼어왓든것이다. 그러나 一般民間으로부터는 年年大赤字公債를 增發함에 對하야 두려운마음을 갓는 傾向 即 消極的 財政 政策의 必要를 力說하는사람도 잇섯든것이 事實이다 어와가튼 財政인플레가 이미 四年間을 繼續하여온 오늘에잇서 明年度豫算編成을 압두고 過般 高橋藏相은 民間의 公債消化力을 안도라보고 赤字公債의 增發과 借金財政政策을 永續的으로는 固執할것이 아니라고 公債漸減·方針을 表明하엿다 이에 對하야 一部에는 公債增發을 主張하는 所謂 公債樂觀論이 相當히 돌고잇다 그래서 高橋藏相은 公債漸減方針을 貫徹함에는 各方面의 支持가 必要하다는 理由알에 다시 지난 二十六日에 公債樂觀論을 反駁하는 聲明을 하게되엇다. 이로서 財政問題에는 積極主義論對消極主義論이 잇서온것이 지금에는 그와 反對로 消極主義論 對 積極主義論으로 變하야가고 잇는 現象을 엿보이 發見할수가 잇다。

二

고개를 돌이켜보자 昭和七年으로부터 出發한 인플레景氣에는 財政인플레와 爲替인플레가 二大原動力으로 되여온것이다 그中에 잇서 財政인플레는 純然한 赤字公債發行으로서 金利의 低下、產業界의 活氣를 促進하여 온바큼 이赤字公債發行의 減額은 反動的景氣를 招致할 念慮가 생긴다。이點에 잇서서 公債漸減은 오늘까지 繼續하여오는 景氣를 깨트리는 結果가된다고 積極的公債增發을 力說하는 積極的財政主義論이 擡頭케되는것이다 그러나 公債政策上 가장 重要性을 띄인것은 公債消化力如何로 이것을 無視하고 增發함은 매우 危險하다。即 公債增發에 對하야 民間側에서 能히 消化할힘이 잇는가 업는가 하는 點에 着眼치안을수 업게된다 만약 民間消化力과 相伴되지안는 赤字의公債를增發하면 그 結果는 惡性인플레를 보게될 危險性이 多分으로 잇다 이런때문에 高橋藏相은 不生產的公債發行을 어되까지 避하라고 그漸減方針을 取한것이다 그러치만 積極的財政主義論은 以上에서 말한바와 가티 築造된景氣의 基調를 문어트리고 一面財政인플레解消는 產業上 計畫을 阻止하는結果가 될念慮가 잇다 그럼으로 昭和七年以來 赤字公債로서 歲入不足이 補塡되어왓스나 오늘까지 惡性인플레가안생겻고 또 日銀과 옙·오퍼레이숀政策이 奏效해 안빠진것은公債發行이 順調로 進行되고잇는것을 말한다는理由알에 民間의消化力을 念慮할것이 업다고 公債增發을 主張하고잇는터이다

三

그러나 高橋藏相은 明年度豫算을 編成함에잇서 從來와가티 膨大한 赤字公債發行을 繼續한에 먼저 民間公債消化力에 對한疑問이 생겻다 即이미發行된 赤字公債로서 民間의消化가 이미飽和點에 達한傾向이 잇슴을 헤아렷다. 다음에는 民間消化力과 不均衡되는 赤字公債發行은 惡性인플레를 招致할念慮가 잇슴을 念頭에 두게되고 그前例를 歐洲大戰後 諸國財政經濟의 破綻을 볼것이다 그래서 公債政策의 健全化 即赤字公債漸減方針을 定하고 이로서 明年度豫算編成에對한 各省의豫算增額要求를 牽制해온同時에 財界에 急激한衝動을 안주는範圍에서 赤字財政의 無限的增大를 막으랴는곳에 主眼點을 둔것인듯하다 그런대 이처럼 健全財政政策으로 도라서라고함에 잇서 오즉 公債漸減方針에 끄치고 敢히 增稅에 손을 못대인것은 不徹底한感이 잇다는말도 不無하다 그러나 이것이 高橋藏相으로서의 苦心을 알수업는點이며 또는 압흐로 藏相의手腕如何를 注目케되는點이다 即 오늘에잇서 高橋藏相으로서 增稅의 不可避를 모르는바가 아닌것이다 그럿치만 四年間 繼續되여오는積極的財政에 急激히 增稅를 斷行하면 前藤井藏相의事例도 잇는바와가 財界에 밋치는影響이 甚大할것을 念慮하야 穩健的公債漸減方針에 于先 끄치것으로 될수바게업다 그럼으로 將來어떠한 階段을 밟어서 增稅不可避가 果然 나타나게 될는지가 압흐로 重視케하는 焦點이다

四

그러면 이公債漸減方針은 압흐로의景氣에 어떠한影響을 끼치게될가 明年度豫算編成이 正式決定에 안이르므로 아즉 斷定的으로 말할수업스나 어떠튼지 高橋藏相의言明으로서 從來의積極的財政政策에 어느程度가變化 即健全財政政策을 加味키로 되것은 이미確定된事實이다 이點에잇서 오늘까지 繼續되여오든 景氣基調의하나인 財政인플레는 그極致點에 到達되것은 疑心할餘地가 업고 떨어서 或은 압흐로 그解消期에 드러서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럼으로 오늘까지 繼續되여 오는景氣는 고개를 너머서 前途에는 下向의길이 잇슬뿐으로 생각케 되는것이 無理가 아닐듯하다 그러나 高橋藏相은 極力 穩健한 政策의 保持에 注力을 하고잇는만큼 아즉 景氣前途에 對하야 急激한 悲觀도 어려운것이 오늘의 財界實情이다

出征兵士의二割 戰鬪不能狀態!
財政的困難은極度에이르러 무首相은人民의怨府

팟시즘의危機

【巴里發電】에디오피아로부터 歸還한 佛國實業界의 某有力者는 伊에紛爭에 關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伊太利新聞은 故意로 眞相을 掩蔽하고 虛勢를 펴고잇스나 事實은 一部倫敦新聞이 傳하는것과 가티 伊太利는 目下 非常한 難局에 直面하야 特히 財政的困難이 甚해서 支拂期限의 外債도 支拂치못하고 에디오피아와 開戰이될 境遇에는 即時 軍費에 困難을 感할 지경이다 그우에 出征軍人의 二割은 이미 病其他의 原因으로 戰鬪에 參加할수업다고 傳하고잇다 軍人뿐아니라 一般民衆도 內心엔 極히 不平으로 지금 팟시즘의 運命도 危險狀態이다』 또 伊太利前勞働同盟首領도 大體 同樣의 事實을 告白하고 잇는데 그가 本國에서 어든情報에 依하면 出征軍人의 士氣가 甚히 不振하야 『얼마後에 못솔리니自身이 出馬하지 안흐면 안될 모양이다』라고 悲觀하고잇섯다。못솔리니氏는 全力을 佛伊親善에 傾注하고 日本과 英國의 態度를 攻擊하야 猛烈히 黃禍論을 唱道해서 歐洲人의 日本에의 反感을 煽動하고잇다 (寫眞은 무首相)

議事範圍限定의 伊의爆彈的通告
十五條適用斷乎阻止

【羅馬二十七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來聯盟理事會의 討議事項에 和協仲裁手續의 續行에 限定하고 規約第十五條에 基한全面的 審議를斷乎 阻止하기로 決定하고 特히 못솔리니首相이 署名하야 二十七日 聯盟事務局에 對하야 左의 電報를 通達하엿다 伊太利政府는 來七月三十一日 開會될 理事會에 出席할 用意가 잇다 但理事會의 討議範圍는 仲裁委員會의 事業繼續을 確保하는 處置를 審議하는데 限定할것이다 以上 理事會決定如何에 따라 伊太利政府는 理事會에 出席與否를 聲明할 權利를 留保한다

陸軍航空陣擴充
朝鮮에飛行團新設

【電通東京電話】陸軍航空陣의擴充에 伴하는 航空部新編成에 關한軍令은 十九日 閣議를 經하야 來八月一日 定期異動發令前日에 公佈될터인데 同軍令의主要한 內容은 如左하다

▲飛行團新設의件 飛行聯隊數個를 合한 飛行團을 編成하야 이것을 作戰單位로 하는것이다 八月一日부터 爲先各務原에 飛行團을新設하고 明年度부터 朝鮮、臺灣의 二個所에 新設할것

▲高射砲聯隊增設의件 重要都市의 防空에 關해서는 軍令으로써 東京、大阪、久留米에 防衛司令部를設置한것이 發令되엇는데 이에 附屬할高射砲隊를 國府台、佐賀、大津에 新設의件

▲飛行學校增設의件 一、航空技術員을養成하기爲하야 所澤에航空技術學校를新設할것 二、飛行下士官及 少年航空兵을 敎育하기爲하야 所澤飛行學校는 專히 將校의敎育에當할것 三、飛行爆擊을 主로하기爲한 濱松飛行學校를 擴充할것

▲飛行幹部候補生制度의件 飛行器材의 充實은 航空工業能力의 增進으로 比較的 急速히 擴充할수가잇스나 操縱士技術士의 養成은 相當한 時日을要하므로 飛行幹部候補生制度를 新設하야 이不足을 補充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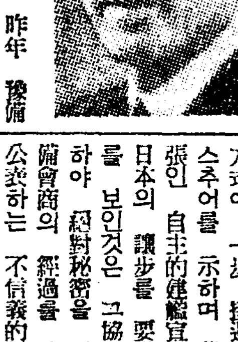
▲航空本部組織改編의件 航空本部는 從來 總務、技術、同檢査의 四部로 分해잇섯는데 이것을 三部制로하고 總務、第一、第二의 各部로할것 그리고 또技術方面의 監督規則을 定하야 航空本廠을 新設하야 東京、本廠外에 立川、各務原、朝鮮、臺灣에 支廠을 置할것 그리고 航空工業界의 指導監督을 爲하야 本部長直屬 內係를 設置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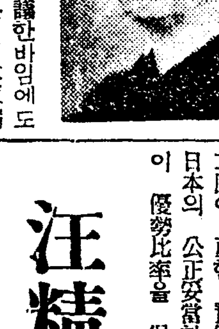
▲民間航空發達助長의件 空軍第二陣擴充을 爲하야 優秀한 民間飛行學校에 配屬飛行將校를置하고 또 民間操縱士養成所飛行學校에 入校시켜서 飛行操縱將校制度를 新設할것

北滿特別區域內 蘇聯民會를設立

【哈爾賓支局發】北鐵讓渡協定第十三條에依하야 哈爾賓 蘇聯領事館에서는 北滿特別區內에 居住하는 自國民敎育、慈善診療等의 諸文化事務를 統制管轄하기爲하야 지난四月에 哈蘇副領事 도리핀스키、極東銀行支配人사베로뵤 所顧問로젠포ー므以下 十七名은 滿洲國民政部에 蘇聯人居留民會設置承諾을 要求하엿던바 그內容의 不美로因하야 以來三個月間을 滿蘇當局間에 根本的問題를折衝中 지난 十七日로 蘇聯人居留民會設立을 正式으로 許可하엿다한다 여기에 依하면 一時迷路에섯든 哈市 蘇聯第나中學校와 診療所等의 其他文化施設은 新設蘇聯居留民會의 經營으로 今後 敎育慈善의活動을 開始하리라는데 正式許可를 接한 蘇聯側에서는 哈市及 北滿區內에잇는 全蘇에 對하야 急速히 民會에 加入하라는것이라하며 副領事 도리핀스키ー以下 基本民會員은 色彩가 濃厚한 共産黨員임으로 압흐로 그活動이 자못 注目處이라한다

英米共同戰線 日本의讓步强要?
會議不調의責任은日本에轉嫁
比率廢棄와그結果





【東京電話】몬셀英海相이 二十二日의 議會에서한 比率主義拋棄宣言은 米國政府側의 이에 呼應함과가튼 態度表明으로 마치 軍縮交涉에 新局面이 展開될것가튼 狀態를 呈하엿는데 外務當局은 此等經緯에 對하야 英國政府의 軍縮對策의 眞意에對하야 多大한 疑問을 抱懷한모양이다 即 英國側이 主張하는 比率主義의 拋棄와 自主的建艦宣言案에 關해서는 昨年 豫備會商에서 日米兩國이 모다 充分知悉한바요 特히 建艦宣言案에 對한 日本의 態度에 關해서도 充分히 協議한바임에도 不拘하고 몬셀海相은 日本軍縮方式에 一步 接近한것가튼 제스추어를 示하며 英國年來의 主張인 自主的建艦宣言案에 對한 日本의 讓步를 要求하는 態度를 보인것은 그協議內容에 對하야 絕對秘密을 지켜야할 豫備會商의 經過를 政府當局에서 公表하는 不信義的 行爲인 同時에 他方 豫備的제스추어로 軍縮交涉決裂의 責任을 日本側에 轉嫁하려는 誤解를 招來하더라도 不得已한 일이라고 보고잇다 元來 英國政府는 二回에 亘한 豫備會商의 結果 日本의 公正妥當한 新軍縮方式이 優勢比率을 保持하려는 英米兩國의 軍縮方針과 相容되지아니할情勢에 잇슴을 看破하고 大體 壽府 倫敦兩條約 所定에 基한 軍縮本會議의 不調를 豫想하고 英獨軍縮交涉開始에 當해서도 協定이 可能한 國家間에 個別的多邊的으로 軍縮協定을 締結하려는 態度를 示하엿는데 佛伊와의 交涉에 當해서도 雖佛의 關係이잇고 또 米國은 總選擧의 對策으로 會議不調의 責을 回避하려고 判斷한 方策을 取한 모양이다 또 米國側이 比率主義撤棄云云하고 또 豫備會商에서 여러번 日本의 「安全感의 均等」主張을反駁함과 妨한것은 軍縮에 對한 英米共同戰線이 漸次 形成되고 잇는것으로 보이므로 兩國의宣傳的放送에 對해서는 多大한 關心을 가지고잇다 그러나 日本側으로서는 軍縮本會議의 年內開催와 共通最大限設定方式에 依한 徹底的 軍縮協定成立을 끗까지 關係國에 要求할 態度를 堅持하고잇다 (寫眞은 몬셀英海相과 스탄드레米作戰部長)

英佛共同으로 에디오피아壓迫
聯盟規約十五條適用을迴避하고 第五委員任命에狂奔

【壽府二十六日發聯合】特別理事會의 開會를 압두고 伊太利政府가 和協 仲裁 手續 續行을 提議하야 事實上 和協에 同意한 結果 理事會는 相當히 好轉되어 聯盟事務局은 多少 愁眉를 開한모양이다 理事會는 라발首相이 提唱하는 第五委員을 任命하야 和協手續 續行을 決定하야 局面을 糊塗할 方策을 取할것으로 豫想되다 和協手續 續行에 濟滑되면 簡單히 理事會는 四十八時間以內에 散會하고 五月二十五日의 決議에 基하야 八月二十五日까지 休會에 入하게 될터이다 에디오피아代表가 和協手續 續行에 反對하고 第十五條에 基하야 紛爭을 全面的으로 處理할것을 要求하거나 또는 中立國의 調査員派遣을 主張하는데잇서서는 聯盟은 이에 空前의破局에 當面하게될터이므로 英佛兩國代表는 모든 壓力을加하야 에디오피아代表의 說伏에 努力하고 끗까지 第五委員任命案을 固執하야 破局을 突破할것으로 보인다

『聯盟理事會의 公正한決意를待期』
에國王의스테이트멘트

【電通아디스아베바二十七日發】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陛下께서는 二十七日 記者團에 對하야 如左한스테이트멘트를내리엇다 聯盟國이 他國의 領土保全을 公然侵犯할 權利가 잇느냐 他國의 獨立을 公然脅威할 權利가 잇느냐 領土擴張政策遂行의 手段으로 武力에 訴할 수잇는 權利가 잇느냐 업느냐를 決定하는것은 將來할 聯盟理事會의 任務이다 伊太利는 原則으로 和協仲裁를 認定하고잇스나 그러나 和協委員은 國境問題에 關한 權利가 업음을 主張하고 第五和協委員任命拒否의 態度를 取하고잇다 聯盟規約及 諸條約의 尊嚴을 維持하고 平和를 保持하는것은 特히 聯盟理事會의 本分이다 에디오피아領土는 지금 伊太利軍에게 侵犯되어 占據되어잇다 에디오피아는 紛爭解決에 和平公正한 處理를 希望하고 거긔에 全力을 다해왓는데 이제는 다만 聯盟理事會의 公平한 決定을 기다릴뿐이다

伊軍需工場 突然大爆發
死傷者三十二名

【電通밀라노二十七日發】當地近郊의라이노市의 軍需工場은 今日午後二時三十分大音響과함께 突然大爆發한 慘事가일어나 多大한 損傷을 蒙하고 또 從業員의 安否가 자못念慮되던바 現在까지 判明된 死傷者는 三十二名이다 그리고 午後六時四十分에 又復 爆發을하엿는데 이것은 그리 크지안코 아모被害도업슨모양이다

世界逸史

方向未定의氣壓

지난一週間은 實로 方向未定의低氣壓에 놀니어 全世界의否慨相을 如實히 暴露하고말엇다는 一言으로서 表現할수잇섯다 갓가히 朝鮮으로 말하면 文字 그대로 低氣壓의 襲來를 바다 二十日夜부터 中部地方에 暴注한豪雨는 二十三日에 이르러 京龍沿江에 大水害를 내고말앗스니

每年當하는水害

라고할지라도 京畿道內에서만水害家屋三千百六十五戶 浸水田畓二千百三十六町步에 達하거니와 이는 近年에 드믄慘禍라고 아니할수업슬것이다 水害는 元來天災임으로 人力으로 엇지할수 업다할것이나 이번水害는 漢江의 護岸工事가 豫算關係로 遲延된데서 그被害程度를 크게하엿다함은 當局도 認定하는바이니 今後의 對策이 時急함을 깨다를 수잇는바이다

伊、에關係益紛糾

伊首相의 暴戾的態度와 에國皇帝의 祖國死守演說로 緊張의度를 加하게된 兩國關係는 二十三日 에國皇帝의 誕辰賀宴에 伊國公使의 出席拒絕로 아조 國交斷絕의 危機에 切迫하게되얏다。그러나 에國은方今朝鮮과가티 霖雨期임으로 南歐의 風和日暖한데서 生而長之한 伊國軍隊를 함부로 몰기가어렵든지 또는 英佛關係 其他로 보아 只今戰端을 開始함은 不利라고 생각되얏든지 伊國의態度는 슬그머니 和協交涉續行을 바라게되얏다하니

聯盟特別理事會

가 三十一日부터 열니게 되면 엇더한 裁斷을 나릴는지 注目되는 바어니와 伊에紛爭을 에워싸고 伊日關係의惡化、伊英關係의不調、米國의中立態度宣明等은 서 國際關係의 微妙한 動向을 窺見할만한 材料라고 하여조한 일이다。그 보다도 여기에 한가지 注目할現狀이 나타낫스니 그것은 即

人種的感情激化

이다。二十四日 倫敦電은 이미 英佛兩國은 伊에關係로 有色人種의蜂起를 惹起시킬까 伊首相의熱考를促한다고 報하여 왓거니와 二十六日 칼캇타電은 無抵抗의 英雄 印度의 깐듸翁이『打倒모소리니』를 부르짓고 有色人種의團結로 에國援助를 圖하자고 表明하엿다함은 一方으로조추 키는 伊에關係惡化는 마츰내世界大戰을 再演식히리라고 豫言하엿스니 아지못게라 下回가엇더할는지。

比率主義의自滅

英國海相몬셀氏는 二十二日下院에서 海軍制限方式으로 比率主義原則을 廢棄하겟다는 言明을하야『暴休狀態에잇는 軍縮界에 一石을던지엇다。比率主義廢棄는 昨秋倫敦會商以來 日本의主張하든바이나『그뒤에올것』이 무엇이냐는 無關이잇서서 英米가 모다 우물주물하여오든바 英國이 突然 이러한言明을하매 米國이 놀낫슬것은 事實이나 米國도 할수업다는드시 이에賛意를 表하고 그대신 安全感均等主義라는 新用語로써 新對策을 삼으랴하는 모양이다。

高橋藏相의聲明

이와가치 軍縮問題가 새로論議되는 同時에 太平洋은 마치建艦의 競爭場化하고 말앗는데 때마츰 日本은 豫算編成期가 갓가워오고 明年度豫算은 亦是軍事豫算의 擴大를 免키어려우며 이에따라 不足財政은 公債에 依하지아니하면 안되리라는 推測이 盛行하게되얏다。그러나 高橋藏相은 二十六日에이르러 公債亂發의危險性을 말하야 重大聲明을 發하얏다。그러나 時局이時局인만치 藏相의 意圖대로 實現될는지는 疑問이라 아니할수업슬것이다。

汪精衛氏中心으로 靑島서重要會議
◇對日態度를決定乎

【電通靑島二十七日發】當地滯在中인 汪精衛氏는 外部와의 面接을 一切 謝絕하고 療養에 專念하고잇는바 浙江省主席 黃紹雄氏를中心으로 汪氏의 枕頭에서 現在 重要會議를 進行하고 잇다 黃氏도 中國係調整에 對하야 過日 上海의 親日派、日本留學生、其他日本出身 有志의 協議經過를 齎來하고 駐日大使 蔣作賓氏와함께 四川省成都로 蔣介石氏를 訪問하고 重要進言을 하엿는바 그때에 蔣介石氏는 不快의 빗츨 보엿슴으로 蔣大使보다 먼저 歸還하야 陳儀氏等과 協議를 거듭하고 靑島에 來하야 汪精衛氏에게 報告한것으로 目下 汪氏와 對日對蔣善後對策을 考究中인 모양이다 靑島에는 右外에 立法院長 孫科氏、實業部長 陳公博、外交部次長唐有壬氏等도 避暑次로 와잇고 近近 宋子文氏도 來靑할터로 同所에서 對日關係調整會議가 開催될것은 必然이라고 보인다

今日本紙四面

日曜氣配

▲株式=氣配低合 後場의 紛糾에 加하야 增稅念慮로 低合商狀이다 大新八二、九〇 鐘新 一二〇、六〇 新東 一三五、〇〇 日産六七、五〇

▲期米=氣配不變 月末을 압두고 賣方이 모다 利喰과 乘替로一服을 告하엿는데 目前은機下如何에따라 高低을 中心으로 相當한 波瀾이 잇슬터로 지금은 押目買이다

▲綿絲=氣配低合

米日爲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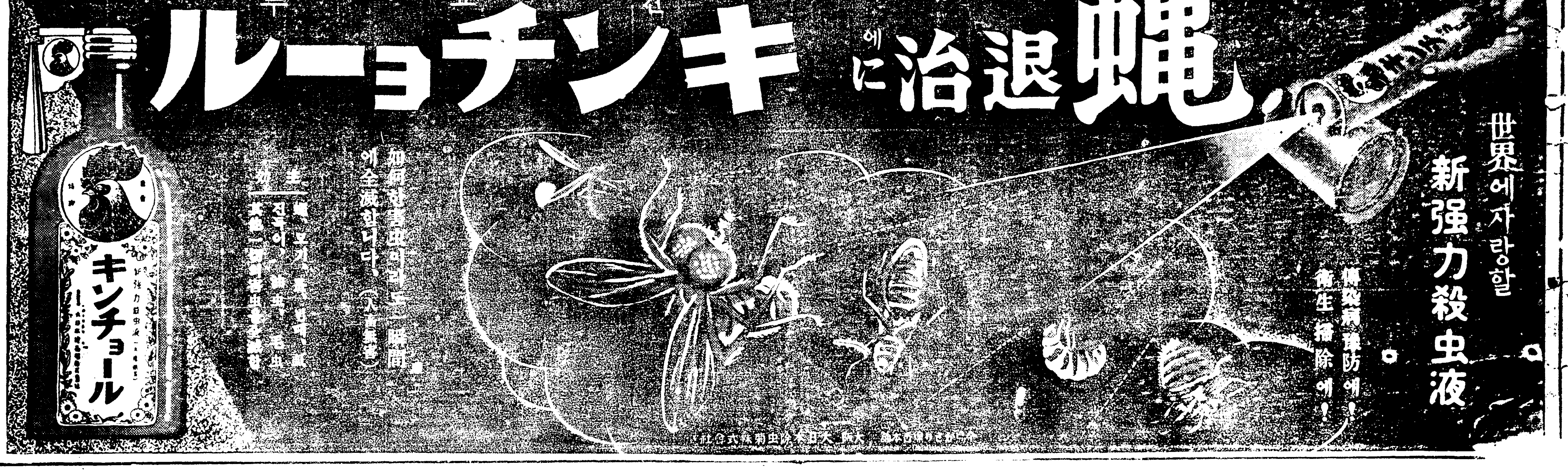
【紐育廿七日發聯合】前日과의比
賣二十九弗 二十八仙 一仙低
買二十九弗 二十六仙 保合

八面鋒

東阿의 에듸오피아와 南歐의 伊太利가 으르렁대기로、世界가 떠들까닭은 업지만、◇얼골힌놈과 얼골검은놈이 싸운다하면、병문싸움이라도 때가 갈닐것은 自然之勢。◇普通學校아이들의 紅白戰이 아니라、全人類의 有無色戰이라하면、큼직한 구경거리。◇沈默과 無抵抗의英雄 깐듸翁이 떠드러니、印度의 三億大衆이 和唱。◇그래도、理事會의干涉을 밧기 실타는것이 伊首相못소리니氏의 態度。◇地中海는 羅馬의洲水어니、紅海의 물결은 누구피로 드는고 黑白이 서로다투니 黑白을 뉘가릴고。

人事·集會

▲金復鎭氏(彫刻家)金泉高普校主催松雪堂銅像 建造準備次 二十七日午後十時發列車로 金泉向發



契約條件愈苛愈酷

二千餘小作人 捺印을不應

滿期지난今日突然契約更新 迫間農場에또紛糾

【進永】 진영지방에 일대왕국을 이루어 잇는 박간농장(迫間農場)은 원래 이토지개간주 촌정(村井)씨로 부터 매수한것으로 주인이 박구이고 지배인이 갈님에따라 소작료는 년부년증가의 일로를 나아갈따름이다 이로인하야 소작쟁의로 유명한 박간농장은 종래 여러가지문제로 관민(官民)을 괴롭게한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업지마는 이번에 또 크다란문제가 발생되여서 지주대소작인이 대치하고 잇다고한다 듯는바에 의하면 박간농장의 소작계약과한이 작년십이월말일로 만긔되엿에 불구하고 아므려한말이 업기로 모다종전대로 시행되는줄만 밋고 잇섯는데 뜻밧게 요사이와서 소작갱신을 한다고 소작인의 날인을 요구하는대 그계약조건이 전자그것보담 가혹한것이 만타고하야 이천수백명 소작인중 일부면사람을 제한외는 모다날인을 거절하고 잇다하며 날인한 사람중에도 아무의미도 모르고 맹종적으로 날인한자도잇고 더욱 심한것은 비료대를 청구하기위하야 간사인 대리에게 맛긴 도장을 본인도 모르게 소작계약서에 날인한것이 잇다고 하야 여론이 비등하고잇다 한다

이제 그조건중 몃가지를 들어보면

一、소작료는 종내수리조합구역내를 제한외에는 전수확의오할오부이든것을 설비에따라서 륙할까지받는다는 제한을 확대한것

二、종래두량(斗量)으로 시행하든것을 근량(斤量)으로 변경하고 따라서품질은 검사원의 검사에 합격품인것

三、소작해제조건이 너무나 지주의 독단적이되여서 소작인을 과도히 구속한것

四、계약조문해석에대하야 법률을무시한것

小作契約에混同한 一般的貸借契約

任意印章의無斷使用에對하야 農場支配人과一問一答記

이문제에대하야 동농장의 검지배인과 기자의 일문일답은 다음과갓다

문 계약서에 륙할까지 받을수가잇다는 문구만잇고 일정한표준은업스니 엇지된것인가

답 이계약서식은 동척회사의것을보고 그대로인쇄한것인대 소작료는 종래대로 변경이업다 그리고 일정한표준은 따로도장을 삭여서찍기로한다

문 소작료를 근량으로변경하고 그리고 검사의 합격품이아니면 안된다고하면 최후의결정은 검사원에 잇지안는가

답 그것은 그때형편에따라 정하겟다(대답에 군색한심이보인다)

문 비료대 종자대 농구대등을 밧지지아니하면 소작권을 해제한다고하엿스니 소작권에 관계업는대차계약에 의한것으로 소작을 해재할수잇는가

답 말할수업다

문 이번에 날인에 불응하는소작인이 잇다고하면 소작을취소할것인가

답 지금말할수업다

문 날인한 소작인중에는 비료대를 청구하여달나고 간사인대리에게 맛긴도장을 본인도모르게 계약서를 밧엇다하니 사실인가

답 그런일은업다 조모(趙某)라는사람이 누구에게 드른말이라고 군중의압헤서 발표한일이 잇기로 말햇다는 배명기(裵命基)를 불너다 무러보왓더니 이증서와가치 소작계약에 찍어달나고 도장을준것이오 비료대청구가아니라고 하엿다

肥料代金請求爲해 印章을맛긴일잇다 裵命基氏談

나의부재중에 간사인 대리가 비료대 청구한다고 나의도장을 청구하기로 집안사람이 내여준것임으로 비료대 청구인것만알고 잇섯스나 요사이와서 계약서에 날인하엿다는 말을들엇소 작일에 농장에서 오라고 하여서 갓슥그말을 못기로 나는지금말한비와 가티 말을하엿소그리고 증서에도장을 찍으라하기 내말한대로 씨인것인줄만 알고 적어주엇소

黑死病 新京서發生

詳細檢鏡結果眞性으로判明 滿鐵과協力,防疫에大活動

【新京二十七日發聯合】 신경에서 가장 갓가운 전곽기(前郭旗)에서는 흑사병(黑死病) 환자가발생되엿는데 환자를 격리식히고 검경(檢鏡)한결과 의사『페쓰트』로판명하엿든바 다시 이십칠일 신경세균연구소(細菌硏究所)에서 세균을 검미경(檢微鏡)으로 상세검사한결과 진성(眞性)페쓰트로 결정하엿다 이로 말미암아 만주국당국은만철과 협력하야 이지방의방역에열중하고잇다고한다

비마즌 薔薇의 艷笑 (오늘덕수궁에서)

돈四十圓關係로 親子斫殺의慘劇

소팔아막긴돈을써버렷다고

【金城】 아비가 아들을 독긔로 따려죽인참사가 지난이십이일오후열한시경에 김화군통구면화사리(通口面化洲里)에서 돌발하엿다한다 가해자라덕준(羅德俊)(?)은 오래동안 농촌의빈한한살님을 살아 삼인의가족들과 근근히살아가든중 금월초순경에집에서 사육(飼育)하든 소한마리를 팔아서 그돈사십원을 가족에게맛기고 집을나가서 소식이업슴으로 집안가족들은 먹고살길이업서서 그럭저럭 그돈을모다써버리엿는데 십여일이지나서 집으로 돌아온덕준은 그돈을 내여노으라 함으로 가족들은 당신이 오래동안 집을나가서 소식이업슴으로 할수업시 모다 써버렷다는것을 사실대로 말한즉 덕준은 그만터저오르는 분김에 이돈을 써업새인것은 필시자긔자식되는 마흥(萬律)(?)이가 술을먹은까닭이니 이런자식은 그대로 둘수업다하며 방에서 끈히잡드러잇는 아들을 독긔로 머리를때리여 즉사케하엿다 이죽은아들은 해부에부치고 아들죽인 덕준은 김성경찰서에 유치되엿다 한다

黃金에蹂躪된倫綱

平壤에郵函不足

【平壤】 평양우편국에서는 시가팽창에따라 현재의 우편『포스트』부내 륙십오 부외십칠합 십오로는 일반에게 불편이만켓다하여증설과 이동배합을 계획중이라한다

牧丹峰公園에 山猫가또出現

【平壤】 사람의그림자가 주야로 끗칠줄을 모르는 모란봉(牧丹峰)공원에서 표범 (그후산고양이로 판명)네머리중 한머리를잡엇다 함은 긔보하엿거니와 평양시민은 공원에서 맹수를 잡엇다하여 큰이야기거리로 되여 놀랍은 사람축에서는 갑자(甲子)년에목단봉에 맹수가 나타나드니 로전쟁(日露戰爭)이 생겻다 그러니 명년에 전쟁이이러난다고까지 잡고대가튼 소리를떠들고 잇는데 이십오일밤에도 부내신창리륙십팔번지 박남식(朴南植)군이 이삼동모와 산보를가다가 을밀대(乙密臺)서남측 밤골과부근에서 크기가중개(犬)만한 고양이 가타생긴 즘생을맛나 『캬』소리를 질으며 달겨들엇다 한다 그러지 안어도 맹수가출현한다 하여 무서 무서하든 차라 엇절줄을 모르고 부들부들떨며 잇다가 일행중에 박남식군이 고함을치며 돌을던저 대항하니까 번개를가티 다라낫다는데 산고양이의 한놈으로 어대인가 평양시민은 공원지대에 맹수가 출현하고잇서서 안심치 못할것이라하여 당국의 긴급대책을 갈망하고잇다 한다

軌道車卅六輛 土兵이燒却

金品强要不應한다고

【咸興】 림강현칠도구(臨江縣七道溝) 벽지에 잠거중인 련합토병단의 일당 사백여명은 작이십사일 오후한시경 동구마록구(馬鹿溝)에 이동하여 동지에잠거하면서, 팔도구 시가지에 접근한 부근각촌락에 출몰횡행하며 금품을 강탈중이며 팔도구시가지에 접근한 부근각촌락에 출몰횡행하며 만반의 준비를하고 잇슴으로, 목하 동시가지주민들은 전부문호를 굿게잠그고 밧글나오지안는형편 이라고 하며 십구도구산문절(十九山溝山門節)에 잡거중의 만군아오영(萬…)의일대는 오십여명으로 동 山軌道運材)청부인에 대하여 종종금품의 제공을 강요중이든바를 불응함으로 이십사일 오후시경, 십명의 부대를 파견하여 파두(把頭)장모(張某)를 호출하여만일거치안으면, 소원전부를총살하겟다고 선언한후에 이십오일 아츰 근거지에 돌아갓든바 이십륙일 오전세시경 삼십명의 무장 토병단이 출현하여 궤도차(軌道車)삼십륙량에 불을 질너 모조리 태워버린후 장모(張某)를 탈거하여다고 한다

偽造勸業債券을 市內서勸買行脚

十二圓주고사면三千圓當籤된다고 犯人搜査에各署活動

최근 시내에서 권업채권(勸業債券)을 위조하야 매매하고 도라단이는사건이잇서 소관 종로서(鍾路署)에서는 목하 범인을 엄탐중이라는데 지난 이십일경 시내 효자동(孝子洞)삼십삼번지의 이호 김중수(金重守)의처 리모순(李母順)(三?)에게 젊은사람두명이 차저와 권업채권 십원권 일매를 이십팔원에 추첨하면삼천원당첨이 된다고 감언리설로 속여서 금십이원에팔고 간일이 잇섯든바, 전기 리모순은 하로를 압당겨 이십칠일에 저축은행에 전긔채권을 제시하엿든바 근일위조채권인것이 판명되엿다한다

漢江各渡船場 全部交通回復

【京南】 한강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한동안 두절되엿든 한강연안의 각도선장(渡船場)은 이십칠일부터 서빙고 (西氷庫)와 광장리(廣壯里) 동작리(銅雀里)나루를 비롯 하야 광장리(廣壯里) 구룡산 등 전부 전과가티 회복이되엿다는데 이로서 경춘(京城春川間)경룡(京城龍仁間)간 자동차 교통도 전부완전개통하게되엇다한다

人道橋上에서 處女가投江

身病을悲觀하든끄테

작이십팔일 새벽세시경에 한강 인도교 제이『피어―』에서 어떤 묘령의처녀가 물로 나려뛰여 자살을하엿다 그래서 소관룡산서(龍山署)에서는 그의신원을 조사한결과 그저녀는 부내창신동(昌信洞)구십구번지 권우길(權又吉)의맛딸 권○○(一九)이란 미혼녀로 어려서부터 몸에병이잇는것을 비관하고여러번 자살을 기도하엿스나 집안사람의 제지로뜻을 못이루고나려오다가 마츰내 이날새벽집안사람의 눈을 피하여뛰여나와서는 그처럼 자살을한것이라한다 그리고시체는 이십팔일오전십이시까지 발견되지안헛다 한다

停車場浮浪꾼被捉

일정한주소가 업시경성역 부근을 배회하며 일반승객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도라다니는 윤수남(尹壽男)(二七)이란 주정뱅이는 오늘 새벽네시경에 술을몹시마시고 경성역에 나가서 삼등대합실에서 때마츰 차시간을 긔다리고 누어잇는 전남라주군영산면산정리(全南羅州郡榮山面山亭里) 최상원(崔尙遠)(二?)이란청년에게 공연히 말드집을 잡어가지고 굵은 대막대기로 머리를몹시 따려서혼도케하고 다시 달은사람들에게 덤벼폭행을 하다가 소관본정서에 검속되엿다 한다

西氷庫學生親睦會 九週年紀念式盛況

【京南】 중등학교이상 상급학교의 종학하는 청년학도들로서 조직된 시외서빙고리 서빙고학생친목회(西氷庫學生親睦會)에서는 지난 이십칠일 오후여덟시 반에 서빙고보통학교 운동장에서 동회창립 구주년긔념식을 위원장인 리종화(李鍾化)군의 사회로 성대히 거행하엿다는데 식이끗난후에는 회원들로서 소인극(素人劇)까지하야 수천관중을 도취케하고는 오후십일시에 폐회하엿다한다

天氣豫報 驟雨模樣

低氣壓은 流球列島南方의海上에잇서서 徐徐히 北進하는中인데 天津北方에는 小低氣壓이잇스나 朝鮮西海岸의 氣壓配置다 高氣壓은 日本東海上에잇가 不安定하야 滿洲朝鮮一帶는 흐리고 驟雨性을 띄여地方에 따라 豪雨가잇다 九州는 흐리고 其他는 大槪天氣가조흘것이다

昨日 最高 二十七度八分 最低 二十二度六分

今日 正午 二十八度一分

運動競技欄

中等陸上界俊銳總動員

養正軍依然優勢

各種目에新記錄續出

全朝鮮中等陸上第二日

降雨로因하야 一時中止되엿든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二回全朝鮮中等學校 陸上競技對抗競技大會第二日은 二十八日午前九時二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續行한바 當日夕刊마감까지의 戰績은 다음과가트며 昨年의優勝校養正高普軍이 依然頭角을나타내이고잇스며멀리地方으로부터出戰한諸校의活躍도자못猛烈하엿다

【四百米豫選】(A組)1、尹泰弘(海高)五五秒 2、吳壽泳(養正) (B組)1、山本(龍中)五六秒八 2、李熙福(京師) (C組)1、桑原(釜中)五六秒四 2、金潤慶(一高) (D組)1、牧鼎(龍中)五五秒六 2、李景義(養正) (E組)1、中原(龍中)五六秒四 2、日下(大中) (F組)1、朴賢英(春農)五七秒四 2、李圭洪(大農)

【四百米리레】豫選(A組)1、第一高普팀四六秒八(李英敏·朴商玉·蘇鎭南·李海宗) 2、龍中팀 (B組)1、平壤高普팀 四七秒三 (鮮于將 李周基 李東華 禹益善) 2、大邱農業팀 (C組)1、養正高普팀四五秒八 本大會新記錄 (吳壽泳 金克煥 李景戈 馬鍾國)

【低障碍準決勝】(A組)1、滿田(龍中)二八秒五(參考記錄) 2、李克榮(一高) 3、上水(京師) (B組)1、柴田(仁商)二八秒九 2、中原(龍中) 3、蘇鎭南(一高)

【百米準決勝】(A組)1、金克煥(養正)一一秒五 2、北野(京工) 3、鮮于將(平高) (B組)1、李英敏(一高)一一秒四 2、禹益善(平高) 3、金基泰(海高)

【千五百米決勝】1、李敏弘(二高)四分二五秒四 2、孫基禎(養正) 3、金道鎭(一高) 4、金甲洙(公州高)5、安鍾澤(一高)6、李漢榮(養正)

【四百米準決勝】(A組)1、牧鼎(龍中)五四秒四 2、桑原(釜中) 3、山本(龍中) 【B組】1、吳壽泳(養正) 五四秒四 2、李景義(養正) 3、尹泰圭(海高)

【低障碍決勝】1、滿田(龍中)二八秒五(參考記錄) 2、柴田(仁商) 3、上水(京師) 4、李克榮(一高) 5、蘇鎭南(一高) 6、中原(龍中)

【棒高跳決勝】1、安保(京師)三米三〇 2、全鵬一(平高) 3、蘇鎭南(一高) 4、鎌田(京師) 5、朴榮商(海高) 6、秋田(大中)

【投圓盤決勝】1 洪永冀(徽文) 三四米八三(本大會新記錄) 2 張聖善(養正) 三四米三一(本大會新記錄) 3 白承旭(養正) 三四米七三(本大會新記錄) 4 高在源(大中) 5 金潤根(大農) 6 金鍾完(養正)

【百米決勝】1 金克煥(養正)一一秒三(本大會新記錄) 2 李英敏(一高)一一秒三(本大會新記錄) 3 禹益善(平高) 4 金基泰(海高) 5 北野(京工) 6 鮮于將(平高)

【走幅跳決勝】1 馬鍾國(養正)六米六〇 2 禹益善(平高) 3 金源機(海高) 4 金基泰(海高) 5 李榮敏(一高) 6 鎌田(京師)

【千六百米繼走豫選】(A)1龍中팀三分四九秒三(牧鼎 中原 山本 鷹松) 2、第一高普팀 3、第一高普팀 (B)1、平壤高普팀 三分四九秒六 (鮮于將 李東華 李周基 尹善弘) 2、養正高普팀 3、京城師範팀

【二百米豫選】(A)1、李景義(養正) 2、李恩永(徽高) (B組)1、吳壽泳(養正)二四秒七 2、內田(龍中) (C組)1、金克煥(養正)二三秒四 2、禹益善(平高) (D組)1、金基善(海高)二四秒七 2、鮮于將(平高) (E組)1、山本(龍中)二六秒一 2、咸圭先(鏡高) (F組)1、李英敏(一高)二五秒三 2、守一(釜中)

【八百米豫選】(A組)1、金道鎭(一高)二分一五秒二 2、韓相浩(大中) 3、李鍾禾(海高) (B)1、李敏弘(二高)二分一一秒六 2、李漢榮(養正) 3、安鍾澤(一高) (C組)1、孫基禎(養正)二分一七秒五一 2、日下(大中) 3、安在玉(鏡高)

【高障碍豫選】(A組)1、禹益善(平高)一七秒四 2、朴熙植(一高) 3、李漢元(養正) (B組)1、平野(京師) 一九秒二 2、崔得龍(二高) (C)1、安保(京師)一八秒九 2 藤野(京商) 3、白承旭(養正) (C組)1、蘇鎭南(一高)二〇秒二 2、鈴木(仁高) 3、滿田(京商)

【投槍決勝】1、馬鍾國(養正)四六米〇六 2、金潤根(大農) 3 洪永冀(徽文) 4、鈴木(仁商) 5 安鍾然(一高) 6、金河鐵(鏡高)

【四百米決勝】1、牧鼎(龍中)五三秒四 2 吳壽泳(養正) 3、尹泰圭(海高) 4、李錫南(公州高普) 5、李景義(養正) 6、山本(龍中)

基靑校籠球部惜敗

西朝鮮遠征中의 中央基督敎靑年會學校籠球部는 지난二十六日에 平壤農業과對戰한바 結局三十八對三十六의한끗差로 基靑校가惜敗하엿다한다

中等野球豫選 京師4 善隣2

中等學校野球大會 中部豫選準決勝 京城師範對善隣商業의 試合은 二十八日 午前十時二十分 京師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對二로 京師快勝하야 明二十九日 午後一時부터 京商과 決勝을 行하기로되엿다

◇投捕 京師=森川、國領…松本 善隣=武田…太田

得點 (京師 002000200—4 善隣 001000001—2)

떼杯爭覇戰 英國二勝

【윈불돈二十七日發聯合】今年度 『떼비스컵』의 歸趨를決할『챌렌지라운드』 英國對米國의 試合은 二十七日『윈불돈』에서 開始한바 結局 英國二勝하엿다

오―스틴(英國) 六―二 二―六 四―六 六―三 七―五 아리슨(米國)

페리―(英國) 六―〇 六―八 六―三 六―四 뻣지(米國)

◇寫眞은開城서열린 全朝鮮女子卓球에 優勝한 同德女高普軍 (朝刊運動記事參照)

運動界人事

▲崔在斌氏 (在東京留學生武道會委員長)二十七日 入京 崇四洞 二〇六의十六에

第五十四回貸借對照表 (昭和十年六月三十日現在)

資産之部

電氣供給事業設備 [illegible]
電氣鐵道及乘合自動車事業設備 [illegible]
瓦斯事業設備 [illegible]
建設工事假勘定 [illegible]
貯藏品 [illegible]
事業未收入金 [illegible]
諸未收入金 [illegible]
有價證券 [illegible]
預金 [illegible]
現金 [illegible]
雜勘定 [illegible]
合計 [illegible]

負債及資本之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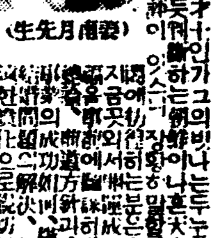
資本金 一五、〇〇〇、〇〇〇・〇〇
法定準備金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使用人退職給與積立金 [illegible]
積立金 [illegible]
引當勘定 [illegible]
買掛金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諸未拂金 [illegible]
短期借入金 [illegible]
支拂手形 [illegible]
從業員身元保證金 [illegible]
預リ金 [illegible]
預リ保證金 [illegible]
雜勘定 [illegible]
前期繰越利益 [illegible]
當期純利益 [illegible]
合計 [illegible]

利益金處分

當期利益金 [illegible]
前期繰越利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之ヲ處分スルコト左ノ如シ
法定準備金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使用人退職給與積立金 [illegible]
役員賞與金 [illegible]
配當金 [illegible]
後期繰越金 [illegible]
右之通リニ候也

昭和十年七月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五番地 京城電氣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大橋新太郎
專務取締役 武者鍊三
取締役 澁澤敬三
同 木本倉二
同 福島甲子三
同 吉谷專吉
同 見目德太
監査役 福島行信
同 高津六平
同 閔大植

奇人神談의主人公
東洋唯一 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姜南月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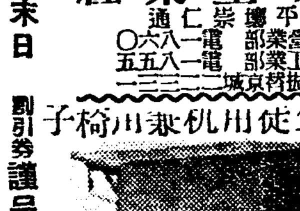
姜南月觀相所

朝報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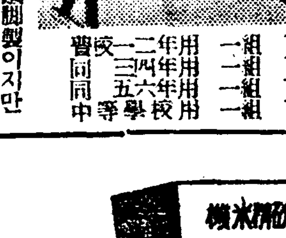
乳母急求
유모를구하오니원하는분은좌기주소로통지하여주시압
京城嘉會洞一ノ五三 崔允周

恩給
長期低廉立替 他에比較最有利 信用은弊店의特色 照會回答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開業十五週年紀念投賣特賣
寢臺專門 平安工業社
平壤崇仁通 營業部 電一八六〇 工業部 電一八五五 振替京城二二三三



新案生徒用机兼用椅子
各學校當局者大好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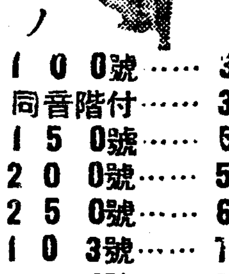
수어지板鐵脚製이지만 從來木脚式보다安價
普通校 一二年用 一組 ¥1,20
同 三四年用 一組 ¥1,70
同 五六年用 一組 ¥?,30
中等學校用 一組 ¥?,90
割引券謹呈
型錄進呈·七月末日

추탕은 兄弟酒店
京城府東大門外崇仁洞一九九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頭取 有賀光豊
資本金參千萬圓
朝鮮各地에支店出張所六十餘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山口樂器店鍾路支店
京城鍾路二丁目
電話光化門 四八 振替京城 一二七六六番

山葉ピアノ



竪型定價
100號……500圓
2號……800圓
300號……950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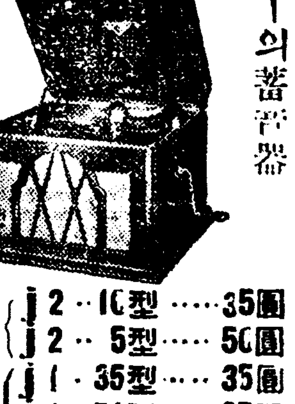
平臺定價
10號…1,000圓
20號…1,250圓
2號…1,750圓

山葉オルガン

百號型

10號型
100號……30圓
同音階付……31圓
150號……50圓
200號……55圓
250號……60圓
103號……75圓
4號……80圓
300號……95圓
5號……110圓
6號……145圓
7號……170圓
8號……190圓

ビクターの蓄音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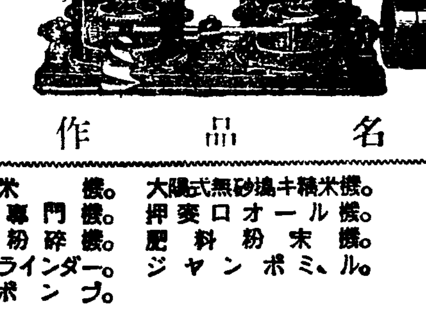


手提型
2-10型……35圓
2-5型……50圓
箱型
1-35型……35圓
1-71型……65圓
1-81型……85圓
1-91型……120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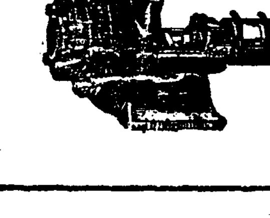
ポリドール蓄音器

手提新發賣……30圓
箱型200號……75圓

外ビクター ポリトール 電氣蓄音器 各種



製作品名
精米機。大陽式無砂搗キ精米機。
麥搗キ專門機。押麥ロール機。
大豆粕粉碎機。肥料粉末機。
フビトグラインダー。ジヤンボミル。
高壓ポンプ。



卸商 飯田商會製作部
名古屋市中區東古渡町三丁目
鐵工部 同 市中區東雲町四八
電話南一五一二三・振替名古屋五〇九八

名城旭 型錄進呈

肺專門療養院
キ
院長 醫學博士 金秉瑞

두통과치통에
―노진

그女子의一生 (169)

방랑편 春園 作 夕影 畵

을남은 금봉의 눈이 뚫고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다못하야금봉이야 듯거나말거나 하랴던 말이나다 쏘다버리리라 하고、

『금봉이。 듯기 거북하더라도내말을 다 들어。 그래。 그런데』

하고 두서를 찾지못해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런데 어저께 영자헌테서옵바허구 나허구 좀 오라고 긔별이 왓단말야。 대단히 시급한일이 잇스니 곳 오라고、편지도 아니구 사람이 와서 전갈을 하거든。 그래서、옵바는마침 안계시고 그래 나혼자 달려가보앗지、영자집으로。그래 갓더니 글세 영자가 어머니허구 안저서 도저히 임허구는 살수업다고 독이올라서 야단이란말야。마치 히스테리들린 여편네모양으로울고불고 짜징을 내고。내가영자마음을 돌리노라고 별아별 소리를 다 해도막 무가내야。임이 자긔에게 대해서는 사랑이업다는것이어든。넘어 냉담하다는것이어든。그리고 금봉이를 사랑하노라고 자백햇다는것이어든어머니더러 이혼해내라고 야단이야 글세。그러다가 할수업시집에 돌아와지。옵바가 들어오시길래 그 말을 햇더니 옵바야 상투끗헤 벼락이 떨어지기로니 눈이나 깜작하는 사람이야? 내버려두라고。 혼인초에는그런 일이 잇는니라고。가만두면 낫는 병이오 건드릴사록 더하는 병이라고。그리고는 혼자중얼거리는 말이 망할것이 분에 넘는 남편을 만난것을 고마운줄을 모르고서、이러시겟지。영자를 두고하는 말이지。옵바말슴을 들으니깐 또 그럴듯도하지마는 밤에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듸 잠이 와야지。모두 내잘못으로、내 질투로 몃사람을 불행에 빠지게 햇나、하고 생각을 하니 견될수가 업단말야。금봉이를 망첫지。임씨를망첫지、영자를망첫지、손선생인들 망친게 아니고 무어이야? 금봉이나 임이나 영자나 이 압헤어떠한 장면을 전개하랴는고하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처요。그래서 밤새도록 한잠 못 자고 오늘 학교에를 가기는 갓지마는 교실에서 무슨 소리를햇는지 모르지。그리고는 금봉이를 차자온게야。와서 내 죄를 자백하고 금봉이 손에서 바다신 벌을 받든지、용서함을 밧든지 하리라 하고。금봉이、용서해주어요。내가 어듸 본래 이러케 요사스런기야 햇나? 미친년갓다는말은 들어도 악인이란 말은 안들엇지。그런데 임에 대한생으로 그만 마음이 뒤집혓단말야。미친 개혼이 씨엇단말야。그런데 인제는 운명으로정해진 죄를다 지어서 그런지는몰라도 그씨엇던 미친개혼이벗겨저서 도로 본심에 돌아왓스니 금봉이 용서해주어요。금봉이만 망첫나。나자신은 더망처노핫지。그야 나는 자작지얼이지。에매하고 불상한것은 금봉이야。금봉이가 나보다 아름답다、나보다도 남자를끄는 힘이더 만타、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지독한 질투의 불을 붓처노핫단말야。』

여긔까지 말하고 을남은 말을 그치고 금봉을 바라보앗다。금봉의 얼굴에는 다시 피가돌고 거의 끈허진듯하엿던 숨ㅅ소리가 나기시작하엿다。

『언니하고 나하고 무슨 엇원이오?』

하는 말이 금봉의 입설에서 흘러나왓다。다음 순간에 금봉은

『언니 그런말슴은 내게 안 들려주섯더면 조흘번햇서。그야 내 마음만 단단햇스면야 아모리 언니가 책동을 하시기로 까딱도 업섯겟지마는 그래도 약한 인생이라 언니가 원망스럽구려。아직 언니를 용서한다고는 못하겟서』

하고는 더 말하지아니하엿다。을남은 금봉의 이 말에 숭배하고십도록 놉흔 무엇을느꼇다。을남은 한참이나 무료한듯이 안젓다가、

『금봉이。나는 요새에 내마옴보다 더 힘 잇고 놉흔 무엇이 잇는것만 가티 느껴저。금봉이도 아다십히 내야 유물론자 아니야。그런데 비록 짧은일생이지만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암만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것 갓지를 안허。이우주에는나보다 큰 힘이 잇서서나를이리저리로 조종을하는것 가터내 마음 속에도 미친개 혼허구 퍽 깨끗하고 놉흔 무엇허구 둘이 싸호고잇는것갓고。그게 하나님과 마귀라는것인지、조병걸씨문자로 모도다 전생의업보라는것인지는 모르지마는 무엇이잇는것만은 사실인것 갓태。그것이 업다고뻑대고 오것이 내모든 죄와 실패의 원인인것갓터。금봉이 내 인제부터는 조은 길로 가도록 힘을 쓰께』

하엿다。

二十八日 (日曜)

◇午後六時三〇分 趣味와實益 洪 顯 坡

◇同六時五五分 必田開發講話 人道는誠에잇다 朝鮮佛敎總會 任 鼎 宰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湖南歌 二、唱劇調 林방울 鼓手 韓成俊

─배하名曲國際放送─

◇同八時三〇分 東京으로부터 遁走曲技術(요한·세바스티안·바하作曲 볼프강·그래─체르 編曲 오─간 헤르바르트·콜미첼바로 밀라·셀라 프리─드벨드·샤라 라이프치히 交響樂團 指揮 한스·와이바하

◇同九時 東京으로부터

◇同九時一分 管律 嚴山會像 玄琴·李彦植 洋琴·李承煥 癸琴·池龍九 短簫·洪斗憲 細笛·[illegible] 杖鼓·李宰夏

◇同九時三〇分 피아노獨奏와獨唱 一、피아노獨奏 暴風雨…헬리·웨─버作曲 二、獨唱(가) 날부르는音聲…파레作曲 (나) 一生의黃昏…멘델스존作曲(다) 노래하는行人…킥패트릭作曲 三、피아노獨奏 祈禱…웨─버作曲 四、獨唱 (가)언제나만나리가…허─버트·존스作曲 (나)도라갈내故鄕…웹介·송作曲

二十九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野球試合實況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朝鮮豫選 ─京城運動場으로부터─

◇同六時三〇分 아코─데온獨奏 金 文 星

◇同六時五五分 經濟解說 貿易으로본朝鮮經濟 李 健 赫

◇同八時 講演 여름과旅行 金 晋 燮

◇同八時三〇分 二重唱과獨唱 一、二重唱 歌劇『마담바터풀라이』피아노伴奏 金文輔…푸치니作曲 二、獨唱 (金山穆) (가) 歌劇『토스카』中에서…푸치니作曲 (나) 歌劇『팔리앗치』中에서……레온카발로作曲 三、獨唱 (林鷄豊) (가) 西班牙小夜曲……비제作曲 (나) 疑問……슈─버─트作曲 테너 金 山 穆 바리톤 林 憲 翼

◇同九時一〇分 ‖京城으로부터 全國中繼‖鐘路夜市風景─京城鐘路街頭로부터中繼─

◇同九時三〇分 連續怪談 白狐亂舞 (一) 申 鼎 言

三十日 (火曜)

◇午後〇時五分 野球試合實況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京城運動場으로부터─

◇同六時三〇分 童話 모주라이와여호 崔 仁 化

◇同六時五五分 經典解說(一)

◇同八時 農家의時間 (農林技師渡邊保治) 農業經營의優劣 譯講 曹 元 煥

◇同八時三〇分 特輯라듸오風景 叢石亭 李光洙作 永郎仙人 李素然 元曉大師魂魄 朴齊行 梅月堂金時習魂魄 尹星畝 楊蓬萊魂魄 金聖雲 玄愛羅 卜惠淑 金先生 金聖雲 漁夫甲 王人三 漁夫乙 尹星畝 効果 李雲芳 演出 朴珍 出演 라듸오·푸레이·미─팅

◇同九時三〇分 連續怪談 白狐亂舞 (二) 申 鼎 言

曆

七月廿九日 (月) 舊六月建癸未(小)廿九日 丙午·水·心·閉

▲小暑 八日(舊六月初八日) ▲初伏 十三日(舊六月十三日) ▲中伏 廿三日(舊六月廿三日) ▲大暑 廿四日(舊六月廿四日)

東京本社 (東京市麴町區九段一ノ四ノ九)

코리아 레코─드

Corea

京城支店 (京城光化門通)

暑中問候

在日本東京 朝鮮基督敎青年會 幹事 尹 槿 東京市神田區猿樂町二ノ四 電話神田(25)二六二三番

海外通信社 朝滿俱樂部 東京市神田區仲町二ノ一四(萬世ビル) 電話神田(25)八一一五番

寫眞金具 鍍金製作販賣 吉田製作所 主任 崔石逢 東京市向島區東三ノ六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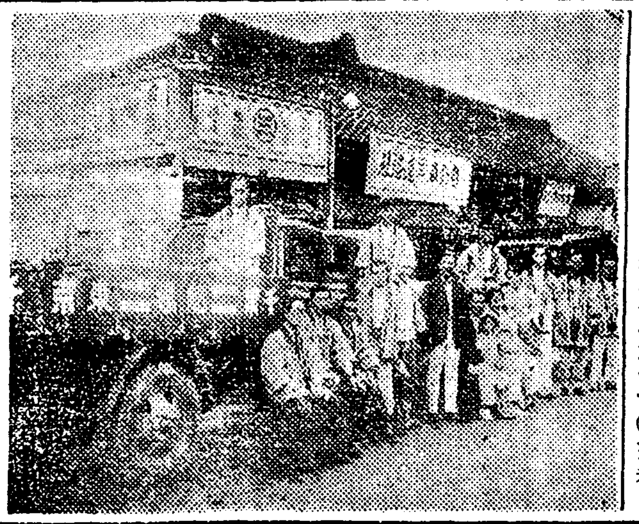
內外絹物 婦人ワイシャツ 寢衣 製造卸業 輸出 朴昌瑞商店 橫濱市中區長者町一ノ七

徽章·メダル·カップ·賞牌·其ノ他 美術工業品一般 日滿徽章製作所 東京市下谷區仲御徒町四ノ六 電話下谷(83)一四九一 振替東京六六五〇一 (カタログ進呈)

李 根 世 東京市神田區駿河臺町二丁目一番地 大日本國民中學會ビルヂング內 電話神田

暑中問候합니다 (秋冬物豊富具備)洋服의仕入은꼭當店에서 (同業者限해カタログ進呈) 合名會社 岩 岩淵商店 東京市神田區豊島町九番地六號 電話浪花(67)二五四六番 振替東京二七九一四番 電信略號(〇イワ)又ハ(イワ)

肺病으로因하야苦悶하시는분은주저말고問議하시요 社團法人 白十字會 東京市神田區小川町二ノ一 電話神田(25)一〇八三 振替東京三一〇三三番



運送業 三 自動車連絡社 社長 金三成 本店 千葉市橫町七三一 電話千葉二二三番 支店 印旛郡八街驛前 電話八街九番

東京에 계신친구들 마음엇고 밤이새도록 一盃酒를 마서가면서 마음대로뛰면서 노시라면우리의嶺南館으로 어서 오세요? 朝鮮料理 嶺南館 東京市深川區龜住町二〇 (市電龜住町下車)

朝鮮料理元祖 美人座

東京市荏原區下神明町四六一(大井驛에서約三町先蛇窪通)

東京이 널기도하고 말아날뒤는 二八靑春의 男女가 만키도 하구려만은 늘기 꽃코 한잔에술을 마서가면서 어엽편 아가씨와 갓치 萬古江山을 불으며 뒤면서 마음껏 노시라면 반드시우리의美人座로픽오십시요

品質本位

花王石鹸 (화왕비누)

夏節의살결을 美麗하게!

夏節은살결이땀으로더러워지며 거츠러지는때입니다살결을보전하살랴면 반드시 화왕비누(花王石鹸)을使用하십시요

화왕비누(花王石鹸)의 가장조흔 品質은연약한살결에부드러운作用을 함으로毛孔에낀때와더러움을完全히 씨처버리며 살결을곱게하며부드럽게합니다

화왕비누(花王石鹸)는어느病院에서든지使用합니다

有名百貨店、雜貨店에잇소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MK 276

東京·花王石鹸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頭痛에 ノーシン(노─신) 効果는期待以上! 더구나 胃腸이안상하는理想的頭痛藥●

남에게말못할淋疾 ネオヂリン(네오지린)으로고치시라 朝鮮總代理店 木村藥房 京城本町四丁目 振替京城四五七番

オーカー (오─카)

チューブ入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全國有名藥店에잇슴

땀띠에 / 진러른데 / 가러운데

어린애기들과婦人들의살결엔 부드러운리니멘트劑가第一이오

在來의打粉類와갓치皮膚面에附着식히는것으로藥効가적고、또는更러지게하는지衣類를汚損할念慮가잇스나、오─카는부드러운리니멘트劑인故로塗擦하면곳藥効가滲透되여、消毒作用이迅速하여、速히말으고衣類를더럽히지안어가장好評이잇다

發賣元 大承合名會社 東京·大阪

當選謝禮

今番昌原郡學校評議員에本人等이當選의榮을得하게된것은有權者諸位의厚意하신德이옴기故에紙上으로謝하나이다 昌原郡學校評議員 北面 金 燐 圭 東面 黃 在 桓

當選謝禮

全南高興郡豆原面協議會員 高興郡豆原面大興里 李 判 善

高興郡道化面加禾里 道化面協議會員 申雲雨 / 高興郡道化面鳳龍里 道化面協議會員 申 彪 / 高興郡道化面加禾里 道化面協議會員 高光瑞 / 高興郡占岩面聖基里 占岩面協議會員 吳舜相

當選謝禮

海州郡海南面協議員 李起弘 吳泰根 崔千一 李建植 李廷煥

海州郡檢丹面協議員 柳熙晩 崔弘善 洪性浩 吳祐錫 宋宗勳 黃昌烈 崔元興 柳基周

海州郡東江面協議員 李承儀

海州郡永東面協議員 宋弼源

痔疾에는 오세로 치질藥으로 全國各藥店에잇슴 ¥0.3? ¥0.5?

二十九日より四日間 納涼短期サービス週間 大衆料金三十錢均一 上映順

一、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監督ノーマントウログ 主演ラニーロス ▲風の接吻

二、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 監督ヘンリイハサウェイ 主演ゲイリークーパー フランチョトーン 助演リチャドクロムウエル ベンカルの槍騎兵

次週封切のパ社超大作二名篇 ▲戀のページエント ▲カレッヂリズム

近日同時封切 ▲ベビイの日見得 ▲勝利の朝

洋畫專門 浪花館

七月二十八日早日 昨日三回 (午前十一時半 二時半 七時半) 映畫鑑賞은團成社에서 언제든지第一級名畫公開

◆英國파라마운트超特作日本版 비러、사월監督作品 제시、마슈主演 永遠의青春 鮮烈한戀愛! 通快한談合! 淸貞한美의池畔이ᄀ것은而拜倫敎의것다만、三伏의酷暑를이저버릴…

◆獨逸우파超特作日本版 樂劇異彩音譜 케데、폰나지 위이리、푸릿지主演 나는낫그대는밤 마음도爽快하다、七月의노래明朗하고健全한대춤에로틱해요! 우파가자랑하는시네오페레타名作品 나는낫그대는밤

◆大朝世界뉴─스新聞大卷封切 ─次週封切─

1、사랑의폐전드、大學의리合 (八月中公開作品豫告)
2、啊啊의인사、碍諧의朱唇
3、원녀의新婦、金色의꿈
4、빗나는百合、나는醫人
5、思春期、自殺俱樂部
6、光榮의都市로、南風

全鮮第一映畫殿堂 團成社 電光 九九七

七月二十七日より短期特別公開 階下席十錢均一

大都映畫社超特作現代映畫 原作脚色…春島眞佐路 監督…服部眞砂雄 中野健治、河合富美子主演 旅がらす

原作…ケイリーウイルソン 監督…ウイズリイデッグルス ジョージラフト キャロールロムバート 主演 ボレロ

大都超特作時代映畫 原作…小埋一平 監督…中島賓三 阿部九州男、東龍子主演 旗本御羽織衆

藤間林太郎、春水麗子 相良傳三郞伊丹慶治、共演 大岡政談餘話浪人甲羅三平が義憤の双血河の大劍陣

櫻井町 本局 八一 大正館

七月二十九日부터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합 낫 一時 밤 七時三十分 始映

◇米國리알이主社製作日本語解說版 猛獸映畫 죽으면죽고、살며살자 全七卷

現代悲劇 新興キネマ社超特作大雄篇 監督……曾根純三氏 撮影……北修たま子 主演……泉 淸 子 女給君代の卷 全十五卷

蘇浦桃花洞 電話 桃花劇場

七月二十九日부터納凉大公開! 晝夜三回興行 料金階上三十錢 階下 二十錢 十錢 大都映畫社超特作時代劇 勝見庄義監督作品! 旅鴉喧嘩街道 桂章太郎 大瀨恕二郎、三城輝子、春水麗子 助演

아프리카는웃는다 로비─드우루지氏 바─드우아라─氏 大珍演 野獸와加羅背景으로이러나는奇想天外! 捕獸冒險의大喜劇이요! 保證한다 大都映畫社特作現代劇 吉村操氏監督! 先生과劍道選手 藤間林太郞、佐久間妙子、大岡怪童、伴淳三郞、大共演

貫鐵洞 電光 二二 優美館

平元線의 大難關
直洞、舘坪間隧道
八月上旬에 着工豫定

【元山】 평원철도(平元鐵道)의가장난관이라 칭하는 직동(直洞)과 관평(舘坪)간 륙키로미돌이든동 연장약일만미돌의 대턴넬(大隧道)을근근 착수키로되어 청부인 지명을 일간하얏게 결정하야 래월상순에 입찰에 부하고 시공에착수 하기로되엿다고한다

本報支局後援 納凉音樂盛況

【元山】 원산춘자유치원(春山幼稚園) 주최와 본보원산지국후원의 납량음악회는 예정과가티지난 이십오일오후구시부터 원산루씨녀고보강당에서 김성현(金顯然)씨 개회하에 개최되엿는바 조선가중학생으로서는 호시 여명은 독창、합창、관현악등상연프로그람의 진행에따라 립추의 여지업시 만원된청중의대갈채를받고 종종야흥을하야 일층 더청중을 도취식혀 자못하로밤의 납량제가되엿다고한다

綜合運動場位置
大勢는大鳳町으로
公園側再活動開始

【大邱】 대구종합운동장 위치문제로 달성공원측편측과 대봉정(大鳳町)측이 서로 유치운동을 맹렬적으로 계속중이든바 대구부에서는 동문제의 해결열쇠인 부긔채인가 공사비용등에 의지하야 위치를 결정하고저 그간 전긔의 두장소를 두고 물색해오든바 십이만오천원 긔채인가 수속한것이 근근 팔만원으로락착허가 되어짐으로 부지매수비가 적은 지대로 결정되리라함으로 신설터구의 대세는 대봉정으로 결정되리라한다 방금달성공원측은 공사비예산할을 부담하드래도 긔여히 목적을 달성코자 방금 긔세를 일층돋이고잇는중이라한다

滿洲東邊道에 青田賣買盛行

【新義州】 만주국동변도(東邊道)일대의 긔근참상은 루보하얏거니와 춘궁시절에 긔근이 극도

되푸리하지안흐면 안될것이라하야 만주국당국에서는 이처전(靑田)매매금지의 명령을 나리리라한다

郡職員內部싸홈에 犧牲은百姓들이
無統制無定案한密陽郡의 —農作指導方針—

【密陽】 「고래싸홈에 새우등터진다」는 격으로 군청내부싸홈에 까닭업는 백성들이 희생만되엿다는 사실—면칠전 밀양군 단장면 태룡리(密陽郡丹場面台龍里)안가연(安可然)씨외 십여인의 삼십여마지기 면화(棉花)밧에 밀양군직원수명이 작당하야 자미는 면화를 작지로처서 전멸을 시키고 콩을 심으라하고 도라갓다는데 별별 수단방법으로 장려하여오든 면화를 이제는마우 처버림에 놀난것은 전기의피해자를 뿐아니라 목화를 심어노흔사람들 전부이엇다

그피해자들은 지난 이십이일 군당국에 진문과 진정을 한바 그러케된 내용인즉 군보통농사게(郡普通農事係)에서 금년부터 전기 피해를 입은 밧들에 전작지도포(田作指導圃)로 지정하여 그곳에 콩을 심으게 할내정이엿는데 면작게(棉作係)에서는 이것을 알고도 그랫든지 모르고 그랫든지 면화를 심으게 하여 면화를 심어든바 이것을 발견한 보통농사게에서는 분개하야 이미 다액의 비료까지 너어노흔 면화를 그와가티 전부 작지로 처버려 만만한 백성의 일년농사만 망처버린것으로 그피해자들은 요사이농번긔임에도불구하고 군으로면으로 손해를 물어달라고 졸자단인다는바 군직원들이장려하니 동리이니하여 얼신하면 백성들은 농작물에폭행을하여 비난이자자한이지음 일반은 그들의안하무인한행동을 비상히 분개한다는데 이에대하야밀양리(李)군수는다음과가티말하엿다

사건의 내용과피해정도는 방금 조사중이니 그에의하야 선처하겟습니다운운

土幕民二十餘名 大同署에 殺到
同僚引致하엿다고

【平壤】 대동서 에서는 서평양역하측 보통강안(普通江岸)토막 삼십여호에 대하여 보건、위생풍치등 세조건과 근대에 이르러는 보통강이 증수되면 칠수도는등실될 렴려가 잇다는 리유등으로 퇴거명령을 햇스나 응하지 안흠뿐더러 이즘엔 증수를 피하려고 림시계책으로 토막우에 각각 이층을 무허가로 건축함에 대동서에서는 더욱분개하여 이십륙일 무허가로 건축하엿다는것으로 네명을 인치취조하여든바 죽어도가티죽고 살어도 가티살자고 단결한 부락민 삼십여명이 대동경찰서에 살도하여 우리들도가티 류치장에 네여달라고 야단들하여 동서에서는 수모자격의 한사람을 불러드려 엄중히 설유하엿는데 금후 동서에서는 지령에 조지아니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는데 엇잿든 근 사십명 토막민이 장마 때인 지금에 토막이나마 살든곳을일코 가로에 나서게되엿다하여 일반은 금후경찰의방침에 대하야 만흔주목을 하고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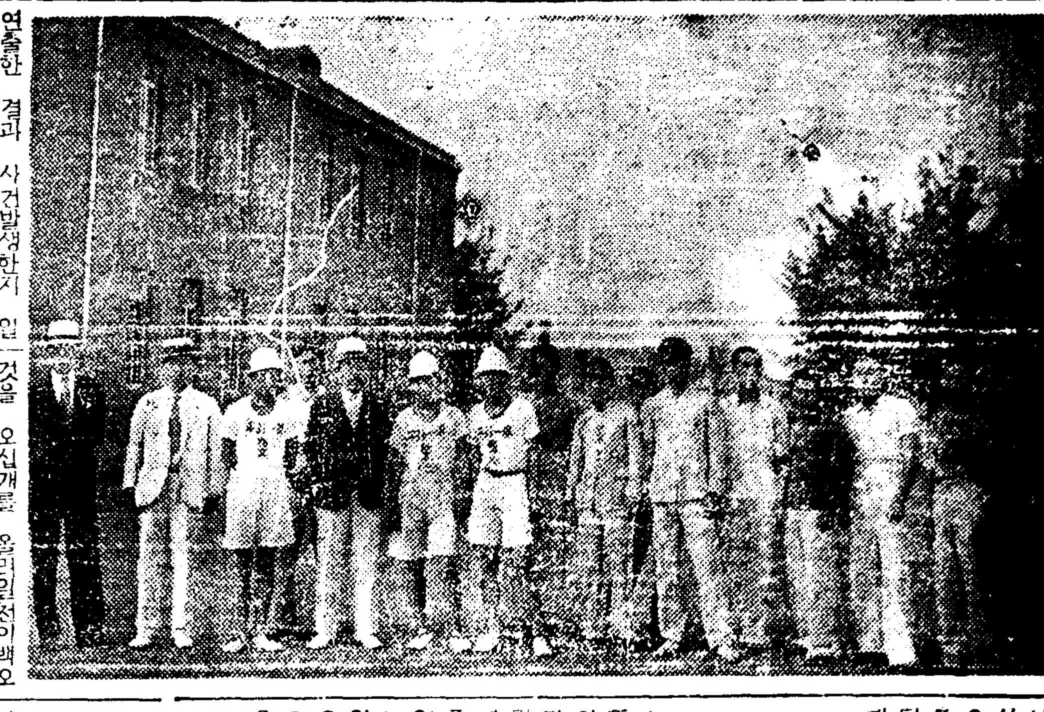
銀塊窃取犯人에 一年半役을言渡
廿七日平壤法院서

【平壤】 수송은괴(銀塊)절취한전평양천서구신의주(新義州)근무고원지전선시(池田仙市)(三)에 관한건로 사건은평양지방법원에서서전(西田)판사가 암성(岩城)검사립회아래 심리중이든바 이십칠일 구형대로 징역일년륙개월의 판결언도가 잇섯다한다

工費를追加하야 石門까지擴張
復舊中의錦門

【平壤】 평양이자랑(門)중의하나인 전금문(錦門)복구문제는 맛츰내 구체화하야 금년에도지방비보조 이천원 부비부담이천원 그리고 기부금삼천원 모다칠천원을드려 불원공사에 착수케 되엿는바 부영선과의 최초예산인 사천원복구비로서는 뚜문아래 석문회장을 계획치안엇든것으로 금번석문을 회장키로되엿는데 공사가 완성되는때에는 이전의 석문협잡으로 자동차통행의 연간불평을 아니늣기엿스나 일소되고 면목을일신할것으로 일반부민은 금추까지에는 공사완성을고대하고잇다한다

◇……官吏의團體中인 [illegible]의 一場面 (平壤)



◇……[illegible] 壯途에 오른 新義州[illegible] 가각選手

凶年來災地金海에 今年은豐作豫想
村落마다農民再生의빗

【金海】 경남김해(慶南金海)에서는 수년동안연속한 수해로서비할때업는 참상을 내엿든데 다행이도 금년에 드러서는 춘경긔로부터 우금까지 우량이사뎍의마침과가티 순조로 마초아서 오늘의 현재로보아서는 일반농작물은 희유의 대풍년을 이루리라는바 일반의 농민들은 길붐을 이기지못하야 곳곳마다모여서희열에 넘치어 수무족도할 울마지안는다고한다

蔡洙般滿期出獄

【安邊】 농촌의 계몽운동을 위하야 만흔노력을 앗기지안코 활동하여오다가 소화사년삼월경에 농우회(農友會)사건으로 녕변경찰서에 검거되여 종시 석방되지못하고 경시국으로 넘어가 오년의 징역언도를 밧게되여 이래 신의주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채수반(蔡洙般)은 오는 삼십일일 만긔출옥이 되리라한다

屍體露出事件 殺人眞犯逮捕

【寧海】 영덕군병곡면영동고래벌(盈德郡柄谷面榮洞鯨塲坪)에서 십사오세된 녀자의 시체가발현되엿슨은 그간 경찰의중대 문제가 되야 본서원수십인과각주재소원 총출동으로 대활동을 연출한 결과 사건발생한지 일주일만에 살인진범을 체포하야 본서로 압송 하엿다는데 그내용을 듯건대 목수업자인 리경룡(李敬龍)(三〇)은 보전교도로서작년도에 전북정읍(井邑)방면에가서 잇다가 어떤녀자를 다리고 금춘에 돌아와서 천무살림을 하다가 가정불화로 쳐된녀자가 도주하야 금곡동(金谷洞)김모와 살게됨으로 리경룡은 분개함을 참지못하야 김모로부터 억지로 빼아서 다리고오다 도중에서 타살하야 모래에 무덧든것이라 한다

在京留學生會主催 全統營蹴球大會
本報支局後援으로

【統營】 오는팔월일일 오전구시부터 학우운동장에서 재경류학생회(在京留學生會)의주최와 본보통영지국문우당(本報支局、文友堂)후원하에 제이회 전통영축구대회(第二回全統營蹴球大會)를 개최한다는바 가입금은 매팀일원씩이며 신입긔일은 칠월삼십일까지 문우당으로 신입하야주기를바란다는바 주최자측에서는 방금 준비에분망중이라한다

要求不聽하다고 女工無理解雇
興南製錬의處事

【興南】 조선광업개발 주식회사 흥남제련소(興南製錬所)제단(製團)녀직공 십사명에 대하야지난 이십사일 당국자로부터 본래매일 일전이백개식 제단하든

工費百萬圓으로 電話中繼所設置
二個年繼續으로電話局도建設
遞信局에서計畫中

【平壤】 체신국에서 명년도 조선、만주련락직통전화증설계획은 수립하과동시에 평양에 중계소(中繼所)를 현재 우편국관사자리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엿든바 부지총면적은 일천여평인데 이개년계획으로 중계소와 전화국의 건설을 끗마칠예정인바 건물은 철근콩크리트이층으로하되 건평총면적은 삼백이십칠평 연평 륙백오십사평이라한다 이와동시에 문제중이든 전화교환방식(자동식)도 변경할것으로 기계두른 합처 총소용비 백만원정도라한다

槐山	統營	城津	沙川
中朝鮮蹴球大會	全統營蹴球大會	第四回關北蹴球大會	西朝鮮蹴球大會
▲時日 八月十一日(日曜)	▲時日 八月一日午前九時	▲時日 八月三、四兩日間	▲時日 七月廿九日、卅日兩日
▲場所 槐山公普校그라운드	▲場所 學友會運動場	▲場所 城津公普運動場	▲場所 沙川私立養德學校運動場
◇主催 朝鮮日報槐山支局	◇主催 在京留學生會	◇主催 城津公普校友會	◇主催 沙川體育會
◇後援 槐山蹴球團	◇後援 朝鮮日報統營支局文友堂	◇後援 北日、東亞、朝鮮三支局	◇後援 朝鮮日報江西支局

江西公立普校 增築을計畫

【江西】 평남강서 공립보통학교(江西普通學校)에서는 항상교실 이협착하야 아동수용상막대한불편이잇서 학부형측에서도유감으로생각하든바금년에는 교실을증축하고명년도부터는될수록지원아동전부를수용케할계획이라고한다

龍岩簡易普校 校舍增築實現

【寶城】 보성군 문덕면용암리간이보통학교(文德面龍岩里簡易普通學校)는 교사가 협소하야불편이 막대함으로 신축을계획하고잇섯스나 경비관계로 실현치못하고잇든중 의외에 광주김희성 김홍열 박태근(光州金喜誠 金興悅 朴泰根) 삼씨와순천군송광면월산리정봉현(順天郡松光面月山里鄭鳳鉉)씨가 이정상을 보고 특별히 자진하야 교사신축용재목사천재를 긔증하엿슴으로 지방유지와 학부형들의신흥운동에 새로운활긔를 띄우게되야 일반면민은 사씨의특지에 대하야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地方人事

▲加藤清氏(原州郡內務主任)新任人事次本報原州支局來訪

▲朴容奭氏(西鮮蠶業株式會社延白分店主任)硏?郡同會社分店轉任人事次本報延安支局來訪

百年學校許可 開校는來月中

【谷山】 황해도곡산군이령면거리소백년학업사(谷山郡伊寧面巨里所百年學業社)에서는 년래로 사회사업에 만히힘써 왓슬뿐만아니라 특히곡산지대안에잇는 천여명부들의 자제교육을 위하야백년학교를 설립코저 교사까지신축하여 놋코 그동안 도당국에 인가수속을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오든바 지난 칠월이십일부로 인가가되여 지금 개교(開校)준비에 분망중 이라는데 오는 팔월이십일경에는 개교식을 거행하리라고한다

九龍里民主催 脚戲水泳鞦韆
本社支局後援

【興南】 흥남읍구룡리(九龍里)시민주최와 본보흥남지국 후원으로 오는팔월사、오량일간 구룡리해수욕장에서 각희、수영、추천(脚戲水泳鞦韆)대회를 개최하게되엿는데 해수욕에 오는사람들만도 매일수천명의 모임으로이대회만은 예상이상의 성황을예기하고 상품으로는 우승기 황소(大牛)등외에 부상도 풍부하다고한다

林巨正 (67)
火賊 洪碧初 作 安碩柱 畵

청석골

아래목에서 자는 녀편네가니불을 훽 저치고 벌떡 닐어안저서 웃목을 나리다보더니

『이놈』

하고 소리를 질럿다 녀편네는 처참이 기피들어 정신없흘으고 자다가 지껄문 열리는소리에 놀라서 잠이 깨엇든것이다

『죽기가 시간이 밧부거든 어서 소릴 질러란』

꺽정이가 칼을 치어들고 녀편네아페 와서 딱 서니 녀편네는 한참동안 물끄럼이 꺽정이의 얼굴을 처어다보다가 네사람소리로

『오냐 죽여라』

하고 고개를 길게 아프로내밀엇다 꺽정이가 속으로 어이업서 하면서 목덜미 부엌살에 칼등을 슬쩍 갓다대니 목이 움질하엿다

『녀편은 그저 죽일년이 못된다 고개 처들구 말들어라』

『그저 죽이지안흐면 엇더케할테냐』

녀편네가 니불짜락으로 아홉가리고 뒤벽에 가서 기대어안젓다

『우선 네죄가 죽어 싼줄을 아느냐 몰으느냐』

『몰으기에 대답이업지 내가 죄목을 닐러드릴테니 들어봐라 늙은시아비를 구박하는것이 하나、어린자식을 들복는것이 둘 종년을 도망질한두록 학대한것이 셋、이웃사람에게 함부루 욕설하는것이 넷、이웃집에 와서 야료하는것이 다섯 이만해두 죄가 다섯 가지다 그러구 방정맛게 내 수염을 끄드러서 채조흔것이 대여섯개나 뽑혓다 내가 수염앗가운생각을하면 네년의 살점을 대여섯점 포를떠두 시원치가 안타』

『밥먹구 똥누는건 죄가 안되느냐』

녀편네 얼굴에 냉소하는빗이 나타낫다

『이년아 건방진말말아』

꺽정이가 칼을 녀편네 불에 대고 한번속 문댄즉 녀편네는 진저리를 치는듯 몸이 옹송거려젓다 꺽정이가 속으로

『기집년이란 아무리 담대한체해두 별수업다』

하고 생각하며 빙그레 우섯더니 녀편네가 꺽정이의 옷은것을 보고는 곳 니를 바드득 갈고서

『네가 함부로 다햇거든 인제 내 말좀들어봐라』

말하고 꺽정이가 미처 대꾸도 하기전에 말을 다시 니어 하얏다

『냥반의대 기집종』

『냥반의댁이란 다무어냐 이년아』

『내말을 다듯구나서 말해라 기집종을 빼돌려 팔어먹구 안부인네몸에 손천엄하구 방중에 냥반의댁 안빵』

『그래두 또 냥반의댁이야』

『량반의댁을 냥반의 댁이라지 무어라구하랴 냥반의댁 안빵에 밤중에 뛰어들어온 놈은 죄가 엇더냐 천참만륙 해두 싸지 안흐나 네놈이 되려 나를 수죄를 해 이놈아 내가 너하구 사생결단 하려구 작정한사람이다 내손을루 너를모죽이면 네손에서 내가죽을작정이다 나 죽은뒤에 시아버지가 원수를 못갑허주구 친정지친들이 원수를 못갑허주구 또 나라에서 원수를 못갑허주드래두 내가 내원수를 갑흘테야 내가 죽어 아귀가 되어서라두 너를 잡어가구말테다』

녀편네의 입귀에서 침이 튀도록 말이 부푸게나왓다

『네년이 오장이 엇더케생겨 저모양생가 배다지를 갈르구 오장을 좀봐야겟다』

『오냐 배를 갈르든 목을 잘르든 하구시픈대루 해라 아무려튼지 한번죽지 두번죽겟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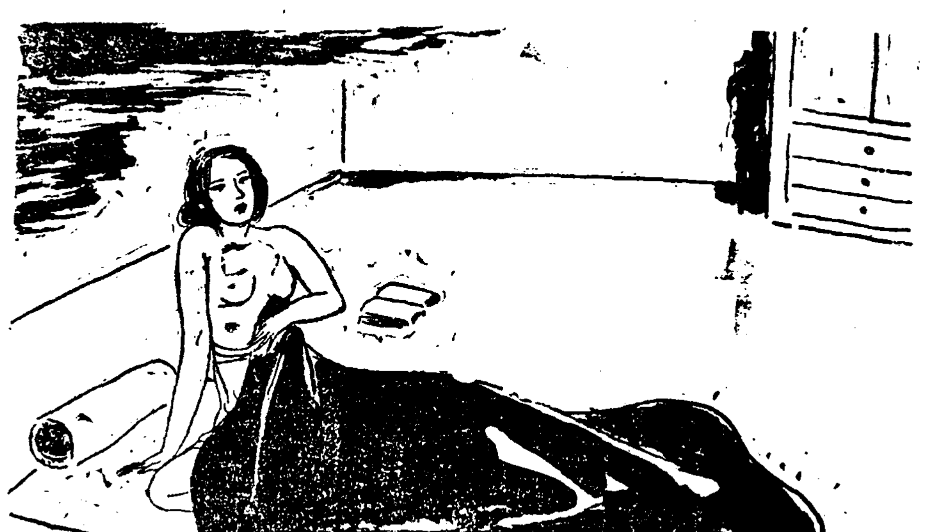
『배때기에 칼들어갈때두 큰소리하나 어듸보자』

『네놈이 손대기전에 내가 배를 내놔주마 죽는년이 아풀가리랴 내놔주께 가마잇거란』

녀편네가 압가린 니불짜락을 한여프로 거드치고 끈풀린 아래옷을 배꼽께까지 나려밀고 아프로 나안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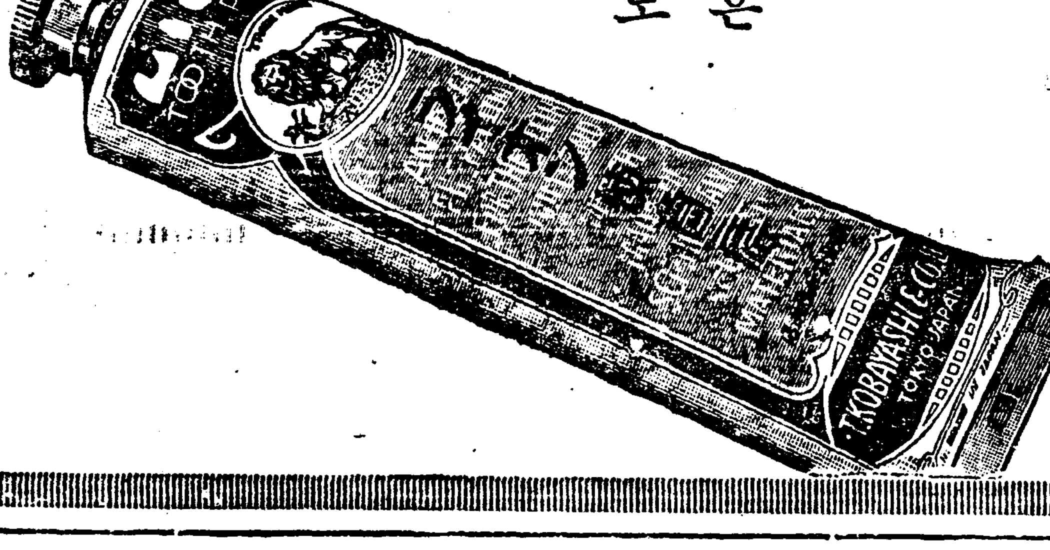
『자 질르든지 갈르든지 맘대루해라』

하고 씩씩하게 말하얏다 꺽정이가 녀편네를 녀긔질르라고 하다가 도리여 녀편네에게 녀긔질름을 당하고 입맛이 썻다 그러나 녀편네의 허연 속살을 나려보는중에 꺽정이는 생각이 달러저다실상은 녀편네를 처음 볼때 조케녀기는 생각이 업지 아니하얏는데 이생각이 망한구석에 들어잇다가 이제와서 온말을 차지하도록 번저 나온것이다 꺽정이가 갑작이 칼날을 집에 꼿고 녀편네에게 덤처서 달리 료정을 내라고 하는중에 녀편네는 어느름에 손을 놀려서꺽정이의 당처를 움켜주엇다



라이온 「煉」齒磨

近代美容의中心은
이에잇습니다
싸라서그貴重한
이를빗나게
하는것을게을
니기수습니다
가장效果만흔
라이온齒磨로
每日이를
닥거주십시요



9C—70